

본 공연은 명동예술극장 화재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서울 소재 국립공연시설 운영중단 조치에 따라 당초 예정된  
12월 17일(목) - 12월 27일(일) 대면공연 취소 후 온라인 극장을 통해 초연되었습니다.

온라인 극장으로 선보이는 <햄릿>의 다양한 정보를 관객분들과 나누고자 공연 프로그램북을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본 프로그램북이 연극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온라인 극장 일정: 2021년 2월 25일(목)-27일(토)

영상 촬영일: 2020년 12월 21일(월)

영상 촬영장소: 명동예술극장



프로그램에 게재된 모든 원고,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해당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 없이는  
재사용(복제, 재인용 및 개인 SNS와 웹사이트 게시 등)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및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perf@ntck.or.kr



국립극단

원작. 윌리엄 셰익스피어

# 햄릿

*Hamlet*



국립극단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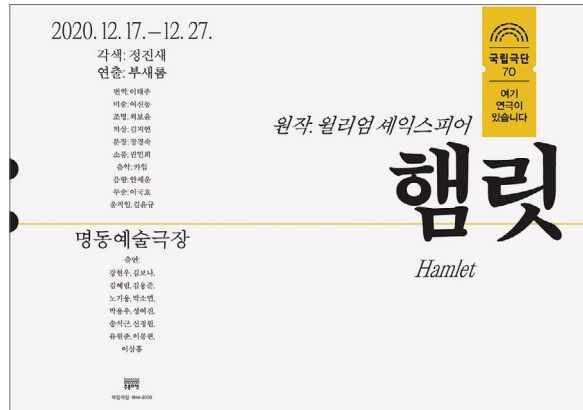
여기  
연극이  
있습니다

국립극단 햄릿 *Hamlet*

원작 윌리엄 셰익스피어 William Shakespeare

각색 정진새

공연대본·연출 부새롬



작가 소개	2
각색작가의 글	햄릿은 지금 역사적인 거리두기 중입니다 ■ 정진세
연출가 인터뷰	햄릿은 울지 않는다 ■ 남궁경
줄거리	10
출연진	12
작품 이해돕기—1	세상을 비추는 거울, 셰익스피어 ■ 안병대
작품 이해돕기—2	새로운 질문과 답을 찾는 <햄릿> ■ 허순자
작품 이해돕기—3	햄릿 NOTE
무대디자인 스케치	30
공연 스케치	32
연습 스케치	34
스태프 프로필	36
만드는 사람들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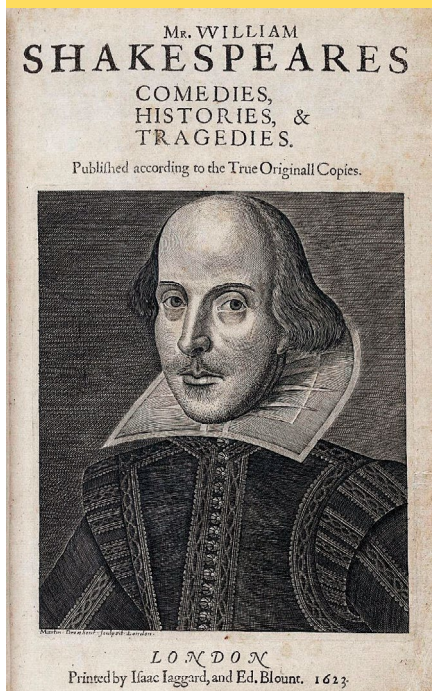
## 윌리엄 셰익스피어

William Shakespeare

1564-1616

### 영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극작가

1623년 출간된 셰익스피어의 첫 2절판본  
'햄릿'의 머리그림



유려한 언어감과 탁월한 문장력으로 시대를 뛰어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풀 어낸 세기의 스토리텔러.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 구전되어오던 흥미진진한 이야기 들과 실제 역사 속 인물들의 드라마틱한 사랑, 욕망, 복수, 배신을 긴장감 넘치게 재구 성한 것으로, 그의 탁월한 문장력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흡인력을 가진다.

#### 주요 작품

〈햄릿〉 〈리어 왕〉 〈오셀로〉 〈맥베스〉 〈로미오와 줄리엣〉 〈말괄량이 길들이기〉 〈십이 야〉 〈한여름 밤의 꿈〉 〈베니스의 상인〉 〈실수연발〉 외 다수

\*희곡 총 38편(희극 16편, 비극 12편, 역사극 10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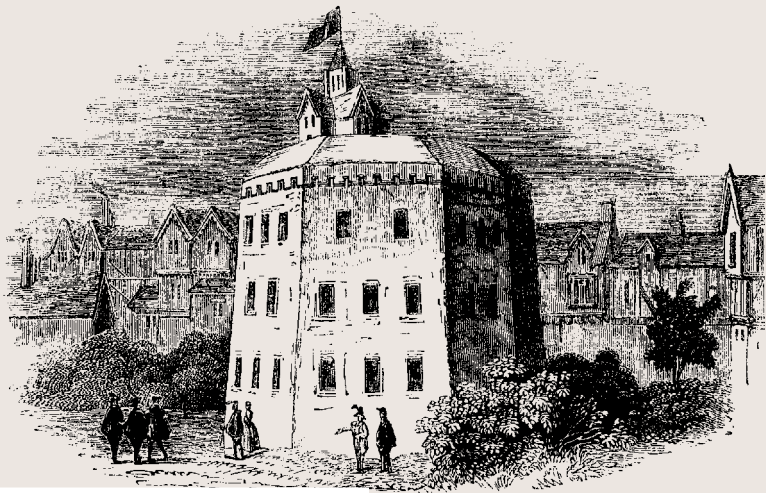
#### 주요 연보

- 1564 출생 잉글랜드 중부 스트랫퍼드어폰에이븐Stratford-upon-Avon에서 태어남
- 1582 18세 여덟 살 연상의 앤 해서웨이Anne Hathaway와 결혼
- 1589 25세 런던으로 진출. 『헨리 6세』를 시작으로 극작가 겸 단역 배우로 활동
- 1594 30세 궁내 장관 극단Lord Chamberlain's Men의 간부로 극단 전속극작가로 활동
- 1595 31세 『리처드 2세』 『로미오와 줄리엣』 『한여름 밤의 꿈』 집필
- 1599 33세 런던 템즈강 남쪽에 **글로브 극장**Globe theatre 설립
- 1600 36세 『햄릿』 집필
- 1603 39세 궁내 장관 극단의 명칭이 제임스 1세의 후원으로 왕의 극단The King's Men으로 변경
- 1613 49세 〈헨리 8세〉 공연 중 화재로 글로브 극장 소실
- 1614 50세 글로브 극장 재개관
- 1616 52세 4월 23일 고향에서 사망

## 글로브 극장Globe Theatre

1599년 개관했으며 엘리자베스 시대 런던에서 가장 크고 인기 있는 극장이었다. 템즈강 남쪽에 위치한 이 건물에는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보기 위해 몰려드는 관중을 최대 3천 명까지 수용할 수 있었다. 〈햄릿〉, 〈오셀로〉, 〈리어 왕〉, 〈맥베스〉 등의 작품이 이곳에서 초연되었으며 아직도 전 세계에서 오는 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대부분은 ‘그라운들링’이라 불리는 입석 관객으로, 무대 앞쪽의 지붕 없는 ‘마당’에 서서 관람했으며, 돈을 내고 자리에 앉기를 선호하는 이들은 3층으로 된 객석을 메웠다. 1613년 공연 중에 대포를 쏘았다가 짚을 덮은 지붕에 불이 붙는 바람에 원래의 글로브 극장은 완전히 불타 버렸다. 건물은 즉시 재건됐지만, 1642년 청교도들이 극장을 폐쇄했고 이후 다시 문을 열지 못했다. 오늘날 현존하는 건물은 1997년 17세기 원형대로 복원된 건물이다. 기존 극장 부지에서 약 230m 떨어진 곳에 지어진 셰익스피어 글로브극장Shakespeare's Globe은 현재에도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상연하여 많은 관객을 끌고 있다.



▲ 셰익스피어 시대의 글로브극장

◀ 복원된 셰익스피어 글로브극장

## 햄릿은 지금 역사적인 거리두기 중입니다



### 정진새

극작·연출뿐만 아니라 비평·편집 등 공연계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언어를 기반으로 한 창작극에 각종 상상력을 가미한 작품을 다수 선보이며 본인만의 스타일을 구축해가고 있다.

### 주요작품

각색 〈그름,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허생전-허생처전〉 외  
작·연출 〈2021 대학수학능력시험 통합사회탐구 영역〉  
〈브레인 컨트롤〉 〈엑트리스 원〉 〈엑트리스 투〉  
〈전국싸움대회〉 〈전민민의 심장이 하나로 뛰는〉 외  
수상 2010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젊은비평가상

셰익스피어의 〈햄릿〉은 국립극단을 찾아주신 관객들께서 보고 싶은 작품으로 꼽은 작품입니다. 아마도 작품에 대한 호기심과 자발적 오해가 자리하고 있을 것이라 짐작하였습니다. 관객들께서 저마다 품고 있는 연극 〈햄릿〉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을 상상하며, 그것이 실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각색의 주안점을 세워보았습니다.

각색의 전 과정은 연출가와 상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일단 ‘작품의 이해와 분석’에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각색작가가 이해되지 않는 지점과 연출가가 이해되지 않는 지점을 공유하였습니다. 대사를 전달하는 배우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관객들과 함께 나누자는 취지였습니다.

이해에 역점을 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작 『햄릿』은 역사적으로 인정을 받아왔던 작품입니다만, 지금과 같은 전환의 시기에는 그 위상과 가치가 여전한지 의문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주체의 관점에서 연극의 역사를 다시 보고, 정전을 다시 써보자는 발상도 이젠 더 이상 낯설지 않지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연극을, 단지 원작이 대단하다는 이유로 수용해야 한다면, 그건 연극 본연의 매력을 외면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햄릿』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많은 부분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분하자면, 작가로서 이해는 되지만 함께 하는 이들에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설득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시대의 관객들께서 이해를 해주었으면 하는 부분과 절대로 이해해줄 수 없는 부분으로 나눠보았습니다. 우리의 납득 여부를 기준으로, 남겨둘 부분과 수정할 부분, 그리고 삭제할 부분으로 구분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원작 송배자와의) 타협 없이 맘껏 각색을 진행하였습니다.

원작에 등장하는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고대 서양의 원전을 출처로 하는 말들, 그리고 유럽적인 배경의 왕궁에서 나올법한 예법과 시궤적인 대사들은 거의 수정하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가당했을 법한 특정 주제에 대한 혐오와 차별도 삭제했습니다. 다만, 원작 햄릿의 시대가 왕정임을 고려하여, 근대 이후의 민주적 가치가 과도하게 극을 침범하지 않게끔 하였습니다. 부연하자면, 그는 특정한 국민이나 민족, 혹은 백성이나 계층을 대표하는 자이기보다는 그저 왕좌의 게임에 임하는 진지한 플레이어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삭제하여 비워진 공간, 수정으로 인해 약해진 행간에는 우리가 상상한 감각과 의식을 채워 넣었습니다. 평생 왕위계승 수업을 받아왔던 햄릿이 느꼈던 비애, 우울한 기운이 감도는 엘시노어 성의 분위기, 강대하던 국가가 쇠퇴하는 순간의 위기감, 가치기준이 흔들리는 시대의 절망감, 주체성을 갖지 못하는 세대 의식 등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평소에 갖고 있던 인간에 대한 실망과 존재에 대한 회의가 이토록 작업에 보탬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각색이 이뤄졌던 시기가 2020년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이었음을, 부디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엘시노어성에 갇혀버린, 고뇌자 ‘왕자 햄릿’이 아니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복수자 ‘공주 햄릿’이 되었습니다. ‘착한 여자는 천당에 가지만, 악한 여자는 어디든 간다’는 말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말을 좀 더 보태자면, 시대를 견뎌내는 어리고 약한 자들이 권력자를 향해 내지르는 소리 없는 함성을, 우리 연극이 더욱 잘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관객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리벤지(R)석에서 혹은 사일런트(S)석에서, 혹은 어딘가에서 저마다의 ‘극 중 극’ 혹은 ‘꿈 속의 꿈’을 완성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작가의 말을 잘 경청해준 연출가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 햄릿은 울지 않는다

### 부새롬 연출가 인터뷰

인터뷰 진행·정리 남궁경\_자유기고가

#### 부새롬

극단 달나라동백꽃 대표.

무대디자이너로 연극 무대에 발을 내디딘 후, 2011년 극단 달나라동백꽃을 창단하며 본격적인 연출 작업을 시작했다. 동시대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지며 사회의 낮은 부분과 소수자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전해왔다. 해외고전의 한국적 작업뿐만 아니라 현실에 뿌리를 둔 창작극 분야에서 두루 두각을 나타내며, 오늘날 한국 연극계가 신뢰하는 연출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 주요작품

연출 〈마우스피스〉〈썬샤인의 전사들〉〈그 개〉  
〈2센치 낮은 계단〉〈로풍찬 유랑극장〉  
〈검은 입김의 신〉〈아이엠파인투〉  
〈달나라 연속극〉 외

수상 2013 서울연극제 젊은연극인상

이번 작품에서 햄릿과 오�필리어의 성별을 바꾼 것에 대해 여쭙고 싶은데요. 내용을 보면 햄릿이 ‘여자가기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햄릿의 성격이 원작과 달라진 점이 적지 않지만 그건 성별과 상관없는 변화이고요. 개인적으로는 햄릿이 공주라는 설정이 주는 예상 가능한 범주로부터 벗어난 각색의 방향이 기대이상의 만족감을 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처음에는 햄릿의 성별을 유지하려는 생각이었어요.

젠더프리<sup>1</sup>도 고민해봤지만 제가 그것에 대해 잘 모르면서 유행을 따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작품을 연출하려면 구체적인 상이 있어야 되는데 인물이 그려지지 않았어요. 젠더프리를 내세운 작품을 참고해서 봐도 어떻게 해야 젠더프리인 것인지, 여전히 잘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햄릿의 남성 성별을 그대로 두되,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문제점을 현대의 시각으로 새롭게 바꿔 제시해 보자는 쪽이었죠. 그런데 문득 남성이 하는 햄릿을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햄릿 왕자가 나와서 울고불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게 너무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시 생각한 것이, 영국에는 여왕이 있으니 햄릿이 공주여도 괜찮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방향을 잡되 진새씨(각색가: 이하 각색가)와 각색 작업을 하며 햄릿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함께 했죠. 여성이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성적으로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거기에 부딪치고, 이런 얘기들을 이 작품에서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 여성은 맨날 그런 걸로 고민하지? 햄릿이 여성이어도 남성과 다를 바 없이 왕권을 갖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그런 걸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배우들도 연습 초반에 햄릿이 여성인 이유가 뭐냐고 많이 물었어요. 그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 많은 대화를 했고, 성별을 넘어서 그냥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관점일 수 있겠다는 얘기를 했죠. 나중에 이 작품(각색본)을 누군가 다시 공연한다고 했을 때, 햄릿을 남자가 하든 여자가 하든 상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저와 각색가가 의도한 것이고요.

각색본의 현대적인 접근이 돋보이는 여러 장면 중에서도 햄릿과 클로디어스의 대화 아닌 대화, 각자의 독백이 교차되는 장면은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원작에서는 햄릿이 숙부를 죽일까 말까 고민하다가 종교적인 이유로,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좀 이상한 핑계로 포기하는 장면이지요. 이번 작품에서는 클로디어스가 애매한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형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럴 듯한 이유’를 대게 함으로써 그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에 썩 나쁘지 않은 조건을 주었어요. 특히 클로디어스가 ‘죽





“

그 누구도  
완벽하게  
악인일 수 없고  
선인일 수도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인물들 모두에게  
정당성이 있어야  
재미있는 것  
같아요.

”

느냐 사느냐’라는 햄릿의 유명한 대사를 하는 것을 보면 그가 햄릿과 같은 고민의 끝에 ‘살아남은’ 존재라는 정보를 줍니다. 그의 변명이 그럴 듯해서 클로디어스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제가 정치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이 작품은 궁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정치적인 암투로 보였어요. 사실 인간이 살면서 완벽하게 옳을 수만은 없잖아요. 서로간의 명분과 옳음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치게 되지요. 이를 세대적으로 본다면 클로디어스는 선왕의 어떤 점을 보면서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어떤 선택을 했고, 햄릿은 또 클로디어스를 보면서 저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감정적 복수가 아닌 제대로 된 단죄를 원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잘못을 단죄하기란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클

#### ■ 젠더프리 Gender-free

성에 의한 제약이나 차별을 최대한 배제하려는 사회 시스템을 이르는 말. 공연에서는 배우의 성별에 관계없이 배역을 정할 때 흔히 '젠더프리 캐스팅'이라고 일컫는다. \_우리말샘 참조



로디어스는 무언가 잘못된 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살인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고, 햄릿은 제대로 된 단죄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숙부와 다를 바 없는 선택을 하게 되죠. 거트루드가 클로디어스와 결혼한 이유에도 어떤 정치적인 상상을 더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완벽하게 악인일 수 없고 선인일 수도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인물들 모두에게 정당성이 있어야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누군가는 클로디어스가 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사실 원작에서의 유명한 대사 ‘사느냐 죽느냐’는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작의 햄릿은 무의식적으로 자꾸 몸을 뒤로 빼는데, 해야 할 때는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때 해서 결국 등 떠밀려 복수하는 형식으로 가고 맙니다. 이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원작에서는 햄릿의 무의식에 머물러 있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정확히 의식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 저는 ‘사느냐 죽느냐’는 독백이, 사실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더군요. 말로는 복수를 결심하면서도 실은 아무 것도 안 하고, 괜히 여자친구한테 가서 신경질 내고, 엄마한테 가서 신경질 내고 그러잖아요. (웃음) 막상 복수를 위한 실제적인 노력은 하지 않는 와중에 나오는 저 독백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햄릿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많은 햄릿을 본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 죽음을 진짜로 두려워하는 햄릿을 본 적이 있었나 생각해봤어요. 작품에 죽음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이는 관념적인 고민일 뿐 두려움이 실제적 감각으로 느껴진 적이 없거든요. 이번 작품에서 그 독백이, 클로디어스에게 준비한 연극을 보여주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고, 삼촌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실질적인 두려움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클로디어스에게 그 대사를 부여한 것도 그 역시 같은 두려움 앞에 섰던 사람이고, 이제는 햄릿이 그 두려움 앞에 서있는 것이죠. 그렇게 관념이 아닌 실질적 위험을 느끼는 감각을 좀더 강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걸 햄릿의 의식 상태로 드러난다고 느껴진 게 아닐까요.

원작이 우연과 감정에 기대어 흘러가는 것과 비교하면 이번 작품은 모든 고비마다 원인과 의도를 즉 논리를 끼워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작에 비해 흐름이 차분해지는 대신 좀더 설명적이 된 것 같아요.

▶▶ 저는 그렇게 감정으로 치닫는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햄릿이 의도적으로 올린 연극을 보고 클로디어스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게 살인의 증거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른이라면 자기가 지은 죄가 있는 경우 더 가면을 쓰겠죠. 감정의 흐름을 떠나서 각 장면들이 제 자신에게 납득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있지만, 저랑 각색가는 논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쓰면 16부작도 쓸 수 있겠다, 이러면서 작업했죠. (웃음) 햄릿이라는 작품의 초연을 연출한다면 다른 방식을 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최대한 이해가 되도록 이야기를

만들면 그 안에서 햄릿이 감정을 타고 가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장면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서 특별히 연출하는 부분은 없어요. 대단히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관객분들이 보시면서 걱정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폴로니어스가 죽은 후에 오�필리어가 보여준 행동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미친 척하며 배우들과 노래를 부르는 것이 진상 파악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인지, 의도된 행동이라지만 의미 없는 돌발 행동으로 보이거든요. 오�필리어가 보여주는 행동이나 노래에 숨은 의미가 있나요?

▶ 이 작품 안에는 한 명의 복수가 아닌, 여러 명의 복수가 겹쳐져 있어요. 원작을 보면 햄릿의 복수만 보이는데 사실 오�필리어도 아버지를 잃었고, 레어티즈도 마찬가지고, 포틴브라스도 복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당한 일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거나 단죄를 하고 싶어하는 네 명의 젊은이들이 있는 것이죠. 일단 오�필리어는 미쳤다고 보이지 않을 거예요. 저항의 방식으로 노래를 부르잖아요. 원작에서도 노래를 부르지만 그 노래는 사실 저항보다는 아버지를 추모하는 노래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이번 작품에서 오�필리어가 어떤 노래를 부를지 정하는 게 어려워서 고민이 많았는데 문득,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가 생각이 났어요. 딱히 이유나 의미는 없는데, 내가 너희를 조롱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선택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도 모르는 노래지만 우리도 다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게 오�필리어가 조롱하듯 이 노래를 부르고, 그게 다시 오�필리어를 지나고 지나서 계속 누군가에 의해 불려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장에서 오즈릭이 햄릿에게 비아냥거리는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햄릿에게 너는 무대 위의 배우, 그럴싸한 연극을 하는 존재라고 말하지요. 햄릿은 이때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자신을 매우 객관화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듯한 태도를 보여 줍니다. 마치 연극의 바깥에서 바라보는 연극 속 인물 같은 느낌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연극에 대한 연극, 메타연극적인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 말씀하신 메타연극적인 요소는 연출의 전체적인 방향 속에 의식적으로 넣은 것은 아닌데, ‘우리가 지금 연극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확연히 드러나는 순간들을 유지하며 작업하고는 있어요. 저는 오즈릭이 ‘이 연극을 끝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묘한 순간이 좋더라고요. 사실 그때쯤이면 관객들이 굉장히 지쳐있거든요. (웃음) 이 연극 자체가 끝난다는 말이기도 하고, 작품 내적으로는 이때까지의 모든 우여곡절을 끝내야 한다는, 작품 내외에 모두 해당되는 그 말이 재미 있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햄릿의 태도도 재미 있다고 생각했구요. 연출이 작품의 모든 것을 의도하고 의식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잘 모르면서 그냥 직관적으로 선택할 때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약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 (웃음)

“

‘우리가 지금  
연극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확연히 드러나는  
순간들을 유지하며  
작업하고는  
있어요.

”

## 줄거리 Synopsis

선왕의 갑작스러운 서거 후 조사위원회가 꾸러지고 사건은 '합리적'으로 일단락된다. 왕위 계승서열 1위 햄릿 공주를 제친 숙부 클로디어스가 왕위를 계승하고, 어머니인 왕비 거트루드는 그와 재혼한다. 선왕의 장례식과 새 왕의 결혼식이 교차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혼란에 빠진 햄릿은 선왕의 죽음에 대한 의심을 품고, 미친 척 연기를 하며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려 하는데...





Following the sudden death of the late king, an investigation committee is set up, but the case is settled quickly and 'reasonably.' Instead of Princess Hamlet, who is the first in line to the throne, her uncle Claudius takes the crown after marrying Hamlet's mother, Queen Gertrude. Watching the funeral of the previous king and the wedding of the new one take place consecutively, Hamlet is thrown into confusion. She grows suspicious about her father's death and pretends to be insane in order to uncover the truth of the matter.



## 출연진



이봉련 Lee Bong-ryeon

햄릿 Hamlet

### 연극

〈궁극의 맛〉 20 | 배우 외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메리 제인〉 19 | 메리 제인 | 홍익대 대학로아트센터 소극장

〈여름은 덥고 겨울은 길다〉 19 | 경애 | 나온씨어터

〈나는 살인자입니다〉 19 | 다역 | 백성희장민호극장 외

〈내게 빛나는 모든 것〉 18 | 나레이터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발렌타인데이〉 17 | 까짜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1945〉 17 | 송골순 | 명동예술극장

외





**성여진** Sung Yeo-jin

거투르드 Gertrude

연극

〈대신 목자〉 20 | 모친 | 아르크예술극장 소극장  
 〈뼈의 기행〉 19 | 순영 외 | 백성희장민호극장  
 〈썬샤인의 전사들〉 18 | 서미연 | CKL스테이지 외  
 〈얼굴도둑〉 18 | 엄마 | 백성희장민호극장  
 〈1984〉 17 | 파슨스 부인 외 | 명동예술극장  
 〈1945〉 17 | 김순남 | 명동예술극장  
 〈이건 로맨스가 아니야〉 17 | 나옴 외 | 소극장 판  
 〈벨기에 물고기〉 17 | 뽀띠 피이오 | 알과핵 소극장 외  
 〈연변엄마〉 16 | 금보미 | 대학로 아름다운극장  
 〈너를 향해 활짝〉 16 | 김수현 | 연우소극장  
 외



**이상홍** Lee Sang-hong

클로디우스 Claudius

연극

〈불꽃놀이〉 20 | 우영 외 | 소극장 판  
 〈명왕성에서〉 19 | 잠수사 외 |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가로등이 켜지는 순간〉 18 | 김씨 | 예술공간 혜화  
 〈깨끗하고 연약한〉 18 | 관장 | 예술공간 서울  
 〈공포〉 18 | 안톤 체홉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아리 아라리〉 18 | 도편수 | 아리랑센터 외  
 〈생존도시〉 17 | 김사장 | 여행자극장  
 〈승관도〉 16 | 강도 갑 | 드림씨어터  
 〈형제의 밤〉 16 | 연소 | 세우아트센터  
 〈미모되니까〉 16 | 카페남 외 | 한양레퍼토리시어터 외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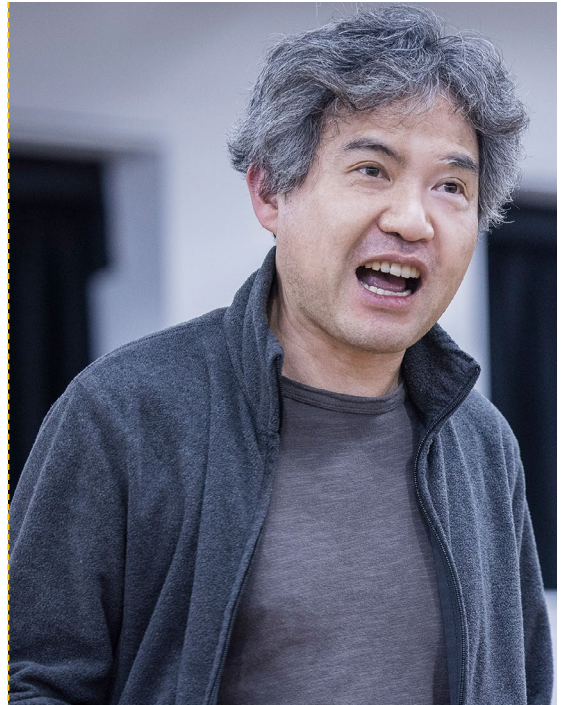


**유원준** You Won-jun

오펠리어 Ophelia

연극

〈아버지들〉 20 | 김두식 | 선돌극장  
 〈어딘가에, 어떤사람〉 19 | 진장환 | 혜화동1번지  
 〈포트폴리오〉 19 | 최명성 |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그 개〉 18 | 보스 |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옥상 발 고추는 왜〉 18 | 현수 |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한여름 밤의 꿈〉 18 | 외 | 펍 |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왕위 주장자들〉 17 | 시가르 |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십이야〉 17 | 안토니오 |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함익〉 16 | 임훈 |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헨리4세〉 16 | 스네어 피블 |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외



**김용준** Kim Young-jun

폴로니어스 Polonius

연극

〈후회하는 자들〉 19 | 올란도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히스토리 보이즈〉 19 | 핵터 |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인방깸〉 19 | 육만원 | 노을 소극장  
 〈막다른 곳의 궁전〉 18 | 데이비드 켈리 | 나온씨어터  
 〈텍사스 고모〉 18 | 아빠 | 백성희장민호극장  
 〈예술이 죽었다〉 18 | 주인 | 혜화동1번지  
 〈로풍찬 유랑극장〉 18 | 김삼량 | CKL스테이지  
 〈검은 입김의 신〉 17 | 광부 | 혜화동1번지  
 〈칼 세이건을 위하여〉 16 | 노양두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두 형사 이야기〉 16 | 황반장 외 | 푸른달 소극장  
 외

수상

2015 서울연극인대상 연기부문 대상



**박용우** Park Yong U

레이티즈·배우 Laertes & Clown

연극

〈스웨트 SWEAT〉 20 | 제이슨 | 명동예술극장  
 〈잘자라랄라〉 19 | 2 | 미아리고개 예술극장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슬픈 사람〉 18 외 | 박용우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외  
 〈이번 생에 페미니스트는 글렀어〉 18 | 재림 | 미아리고개 예술극장  
 〈그들의 적〉 17 | 사카모토 | 혜화동1번지  
 〈세일즈맨의 죽음〉 17 외 | 해피 |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  
 〈타조소년들〉 16 외 | 블레이크 | 소극장 판  
 〈외계인들〉 15 | 재스퍼 | 소극장 판 외  
 〈부산 밤바다〉 15 | 박용우 | 스튜디오76  
 〈이런 꿈을 꾸었다〉 14 | 남자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외



**김보나** Kim Bo-na

호레이쇼 Horatio

연극

〈동양극장 2020〉 20 | 윤정욱 | 백성희장민호극장  
 〈땃글부대〉 19 외 | 임소진 | 동양예술극장 외  
 〈카르멘〉 19 | 카르멘 | 정동 세실극장  
 〈응, 잘가〉 19 | 종삼 | 여행자극장 외  
 〈‘미인도’ 위작 논란 이후 제2학예실에서 벌어진 일들〉 17 | 조성원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소〉 17 | 동이엄마 | 광주아시아문화전당  
 〈누수공사〉 17 | 옛애인 | 소극장 판  
 〈G코드의 탈출〉 14 | 여인 | 혜화동1번지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슬픈 사람〉 13 | 윤보나 | 혜화동1번지  
 〈폭풍의 언덕〉 07 | 캐서린 | 상상마당  
 외



**박소연** Park So-yeon

마셀러스·배우·무덤지기 Marcellus, Clown & Gravedigger

연극

〈불꽃놀이〉 20 | 지혜 외 | 소극장 판  
 〈화전가〉 20 | 홍다리택 | 명동예술극장  
 〈두뇌수술〉 19 | 속향 | 대학로 CJ아지트  
 〈영지〉 19 | 효정 | 소극장 판  
 〈분노하세요〉 18 | 크레이지 송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페스트〉 18 | 오통판사 부인 | 명동예술극장  
 〈친절한 에이미 선생님의 하루〉 18 | 이선생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청춘예찬〉 16-17 | 여자 | 아트포레스트 아트홀  
 〈STREET〉 04 | 백수연 | 행복한 극장  
 〈몽연〉 03-05 | 가면인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외

뮤지컬

〈베리어프리 뮤지컬-아빠가 사라졌다〉 〈태봉국의 왕 궁예〉 〈명동로망스〉  
 외



**송석근** Song Suk-geun

버나도·배우·무덤지기·대변인 Bernardo, Clown, Gravedigger & Spokesman

연극

〈스웨트 SWEAT〉 20 | 크리스 | 명동예술극장  
 〈들꽃찾아〉 19 | 독립투사 | 선돌극장  
 〈문신〉 17 | 파울 | 연우소극장  
 〈짬뽕〉 17 | 백만식 | 신도림프라임아트홀  
 〈감염〉 16 | TV소리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세일즈맨의 죽음〉 13 | 해피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성북동갈매기〉 13 | 메드벤젠코 | 예술공간 서울  
 외

뮤지컬

〈서울의 달〉 〈장담그는 날〉





**신정원** Shin Jeong-won

오즈릭·배우 Osric & Clown

연극

〈프라이드〉 19 | 실비아 | 아트원씨어터 2관  
 〈썬샤인의 전사들〉 18 | 송시자 외 | CKL스테이지 외  
 〈그 개〉 18 | 선영 |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2센치 낮은 계단〉 18 | 아무4 | 소극장 판  
 〈준대로 받은대로〉 17 | 이사벨라 | 명동예술극장  
 〈세자매〉 15 | 이리나 | 서강대학교 메리홀 대극장  
 〈자매〉 14 | 수남 | 선돌극장  
 〈미사여구 없이〉 14 외 | 윤서현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펠리칸〉 12 | 예르디 | 게릴라극장  
 〈빨〉 12 | 선희자 | 두산아트센터 Space 111

외



**강현우** Kang Hyun-woo

포틴브라스·레날도·배우 Fortinbras, Reynaldo & Clown

연극

〈어떤접경지역에서는〉 19 외 | 황철호 | 동양예술극장 외  
 〈깨끗하고 연약한〉 18 | 권용국 | 예술공간서울  
 〈드림타임〉 17 | 정시우 | 소극장 판  
 〈해맞이〉 15 | 브로카 | 선돌극장  
 〈빨〉 15 외 | 안대리 | 유시어터 외  
 〈앙코르〉 14 | 하정완 | 소리아트홀  
 〈웰즈로드 12번지〉 14 | 이익슨 | 정보소극장  
 〈B성년·美성년으로간다〉 14 | 백설주 | 혜화동1번지  
 〈삼국유사·만파식적·도난 사건의 전말〉 14 | 무사 | 백성희장민호극장  
 〈심이야〉 12 | 세바스찬 | 강동아트센터 소극장

외



**노기용** Roh Gi-yong

로젠크란츠 Rosencrantz

연극

〈숨그네〉 19 | 레오 | 래빗홀씨어터  
 〈아리아 다 카포〉 18 | 글렌 굴드 | 삼일로창고극장  
 〈썬샤인의 전사들〉 18 외 | 한대길 | CKL스테이지 외  
 〈2센치 낮은 계단〉 18 | 아무6 | 소극장 판  
 〈로퐁찬유랑극장〉 18 | 하가림 | CKL스테이지  
 〈한여름 밤의 꿈〉 18 | 큐피트 외 |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당신이 알지 못하나이다〉 17 | 한만우 |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검은 입김의 신〉 17 | 상진 | 혜화동1번지  
 〈짬뽕〉 17 | 일병 | 신도림프라임아트홀  
 〈연변엄마〉 16 | 전우진 | 아름다운극장  
 외



**김예림** Kim Yerim

길덴스턴 Guildenstern

연극

〈동양극장 2020〉 20 | 오춘심 | 백성희장민호극장  
 〈에쿠우스〉 19 외 | 질 메이슨 | 서경대학교 공연예술센터1관 외  
 〈잃어버린 마을〉 19 | 김꽃님 | 충무아트센터 중극장블랙  
 〈여도〉 18 | 광대 |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브라보마이라이프〉 17 | 윤이나 | 상명아트홀  
 〈바보햄릿〉 17 | 배우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외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플로니어스**

총리

**클로디어스**

왕.  
햄릿의 숙부

**선왕**

햄릿의 아버지

**레이티즈**

플로니어스의  
첫째아들

**햄릿**  
공주

**거투르드**

햄릿의 어머니

**오펔리어**

플로니어스의  
둘째아들

**호레이쇼**

**마셀러스**

**버나도**

햄릿의 오랜 친구들

**로젠크란츠**

**길덴스틴**

햄릿의 옛친구  
클로디어스가 고용한  
스파이

**포틴브라스**

동국의 왕자

**배우들**

**오즈릭**

조사위원장



## 세상을 비추는 거울, 셰익스피어

### 안병대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前 한국셰익스피어학회 회장



아버지의 유령을 보게 된 햄릿

### 햄릿의 유명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극작품은 얼마나 될까? 유명한 고전으로부터 각광받는 신작들만 따져도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그 중에 400년도 더 지난 〈햄릿〉(1601)이 있다. 그러나 〈햄릿〉은 잊혀 지지 않고 계속해서 소환되고 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 중 가장 많이 무대로 불러내지는 작품이 아닐지 싶다. 전 세계에서 하루라도 햄릿을 마주하지 않는 날이 있을까. 〈햄릿〉과 ‘햄릿’은 엘시노어 궁전을 떠도는 아버지 햄릿의 유명처럼 오늘도 우리의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유명이 아들에게 남긴 “나를 기억하라”(1막 5장)는 당부는 무대를 통해 수백 년 동안 잘 지켜지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햄릿은 온갖 형식과 차림과 색채로 등장하고 있기까지 하다. 창극, 판소리, 뮤지컬, 오페라, 교향곡, 발레, 소설, 영화 등으로 다양하게 각색, 변형, 재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만 하더라도 〈햄릿〉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 디즈니 만화영화 〈라이언 킹〉을 포함하여 90편이 넘는다. 뿐만 아니라 〈햄릿〉은 학술연구를 통해서도 매일 매일 지식의 서가를 채우고 있다. 관련하여 워포드 Sunanne Wofford는 “지난 4세기에 걸쳐 영국과 미국의 문화사를 쓰는 것은 곧 〈햄릿〉 비평사를 쓰는 것이다”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400년 동안 살아있는 인물, 그가 햄릿이다.

### 왜 〈햄릿〉인가

〈햄릿〉은 한마디로 복수극이다. 동생이 선왕인 형을 시해한 후 형수와 결혼하고 왕위를 찬탈한 것에 대해, 조카 햄릿 왕자가 복수하는 이야기가 핵심 플롯이다. 단순한 이야기의 틀로 보자면, 요즘 흔히 말하는 ‘막장드라마’의 원형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그것은 혈육시간에 벌어지는 패륜적 막장 복수극이라고 하겠다. 만약 스토리의 배경을 궁전에서 재벌로 바꾼다면, 더욱 뻔한 막장 3류 연속극으로 치부될 수도 있다.

그러나 〈햄릿〉은 사실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다. 5막 20장에 4,024행의 길이로 셰익스피어의 39편 전 작품 중 가장 긴 극이다. 무삭제 공연을 한다면 최소 6시

간 이상이 소요된다. 그 양적 구성 자체가 당대의 모든 드라마를 압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감히 풀 버전의 공연을 감행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작품이다. 그러므로 애시 당초 <햄릿> 공연은 연출가가 선택한 작품의 일부를 감상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햄릿>은, 물론 이론이 있기는 하지만, 셰익스피어가 남긴 전 작품 중 최고의 작품으로, 나아가 영어로 쓰여진 가장 위대한 비극으로 평가되고 있다.

왜 그렇게 높은 평가와 집중적인 관심을 받아온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다양하겠으나, 필자는 다음 네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햄릿>이 담고 있는 담론의 깊이와 넓이와 규모에 기인한다. 텍스트의 빠대는 복수이야기이지만, 그 안에는 인간과 세상과 시대에 대한 방대한 탐사 기록을 담고 있다. 부연하자면, 이 극은 복수를 기민하게 수행하느냐 마느냐하는 ‘행위의 문제’를 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 그리고 ‘어떻게’ 복수해야 하느냐는 ‘사고의 문제’를 깊이 있게 천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 상자 밖에는 ‘복수’라는 제목이 쓰여 있으나 그 안에서 우리는 인간 삶을 이루는 본질적 의문들과 마주하게 된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세상이 왜 이런단 말인가?’ ‘진실은 무엇인가?’ 더하여, 이 물음들에는 선과 악, 탐욕과 양심, 도덕과 부도덕, 진실과 위선, 사랑과 배반, 정의와 질서, 삶과 죽음 등 수많은 화두를 내포하고 있다. <햄릿>은 드라이든<sup>■</sup> John Dryden의 주장처럼, 이른바 ‘거대하고 종합적인 영혼’을 소유한 셰익스피어, 그의 걸작 중의 걸작이다.

둘째, <햄릿>이 나타내는 빛나는 예술성이다. 셰익스피어는 런던 연극계에 투신한 이래 산전수전 다 겪은 인생살이뿐만 아니라, 사극과 희극과 실험적 비극을 통해 단련된 예술적 감각과 필력을 <햄릿>에서 만개시켰다. 또한 그는 <햄릿>을 통해 자신의 창작 인생 최초로 외적 갈등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숨어있는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다. 그는 탐욕과 양심이 뒤엉켜 싸우고 있는 또는 고뇌와 번민에 갈등하는 인간의 심연으로 깊이 더 깊이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그것을 정교한 묘사와 정확한 비유, 아름답고 심오한 언어, 이른바 ‘마법적인 언어’로 기록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3막 1장) 그것이 위대한 비극, <햄릿>의 탄생이다. 이른바 ‘성격비극’이 탄생한 것이다. 그리하여 내면이 펴낼 끓어 넘치는 인물, 수도승처럼 침묵하다가도 광대처럼 자유로운 인물, 사나운 말을 폭포수처럼 쏟아내다가도 산들바람처럼 감미롭게 속삭이는 인물, 사색적일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인물 그리고 우유부단한 청년인 동시에 용감한 무사, 바로 “존재의 강렬함<sup>Sen Gupta</sup>”을 보여주는, 불멸의 영웅 햄릿을 탄생시켰다.

셋째, <햄릿>은 구조적으로도 탁월하다. 로즈<sup>Mark Rose</sup>가 지적하고 있듯이 “언어에 통달한 만큼이나 설계에도 통달한 극작가”의 역량이 최고로 결집된 작품이다. 그리하여 긴장과 이완, 집중과 분산, 빠름과 느림, 어둠과 밝음, 걱정과 평안의 극적 흐름은 “완벽한 조화를 추구하는 르네상스의 심미적 관점을 반영한 ‘복합적’ 구조물<sup>Madeleine Doran</sup>”로서 극적 흥미를 최고조로 선사한다. 무대와 배우와 관객에 능통한 극작가는 <햄릿>에서 최고의 설계도를 그렸다.

넷째로 언급할 것은 <햄릿>의 영원한 현재성이다. 셰익스피어가 창조한 인물들은 긍정과 부정 또는 약점과 강점을 함께 지닌 살아있는 인물로서 나타난다. 천륜을 거스른 악당 클로디어스도 한편으로 유능한 행정가이자 외교가로서 그려지고, 숙고하고 신중하던 햄릿은 상황에 따라 전격적이고 기민하게 행동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마치 서울거리에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있는 동시대 사람인 것처럼 우리 눈앞에 생생히 살아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는 인간과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통찰하였으므로 문화, 역

■ 존 드라이든 John Dryden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 비평가  
(1631년 출생). 그의 셰익스피어  
비평은 그 후 100년간에 걸쳐  
셰익스피어 비평의 기초가 되었고  
‘영국 비평의 아버지’라고 불렸다.

사, 지역, 언어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여 여전히 우리에게 공감과 깨달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공을 초월하여 세상을 비추는 거울, 그것이 <햄릿>이다.

## 시대가 셰익스피어를 낳았다

시대는 거침없이 다가왔다. 14세기 중반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의 바람은 독일과 프랑스를 거쳐 15세기 말 브리튼 섬에 상륙하여 거대한 태풍을 일으키고 있었다. “르네상스란 세상과 인간에 대한 발견이다”는 부르크하르트 Jacob Burckhardt의 말처럼, 천년의 종교 시대가 저물고 인간의 시대가 왔다. 그러므로 문학과 예술 또한 변화를 피해갈 수 없었다. 인간사의 온갖 사연을 사실대로 그려낸 세속문학이 꽃피기 시작했다. 특히, 연극은 잉글랜드 역사상 최대의 황금기를 맞았다. 성경에 기반을 둔 틀에 박힌 ‘도덕극’이나 ‘기적극’이 막을 내리고, 사극, 희극, 비극, 로맨스 극 등이 무대를 채웠다.

관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1576년 최초의 공공극장 ‘시어터 The Theatre’를 필두로 커튼, 로즈, 스완, 글로브 극장 등 우후죽순 대규모 극장들이 세워졌다. 가히 연극의 전성시대였다. 극장은 날품팔이 일꾼으로부터 관리와 귀족에 이르기까지 관객들로 만원이었다. 1590년대 중반 매주 연극 관람객은 당시 런던 인구의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5,000명이었다. 이제 극장은 교회만큼이나 중요한 곳이 되었고, 그 중심에 셰익스피어가 있었다.

## 셰익스피어, 그는 누구인가?

2020년 온 세상에 코로나 역병이 창궐하고 있다. 1564년 셰익스피어가 태어나던 해에도 잉글랜드에는 역병이 넘실대고 있었다. 이미 8개월 동안 런던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2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페스트는 1월부터 북부로 이동하고 있었다. 4월 23일 셰익스피어가 태어나던 날 스트랫퍼드는 초

비상 상황이었다. 페스트 전파의 통로에 위치한 탓이었다. 7월부터는 이웃들에서 역병의 희생자가 속출했지만, 웅케도 셰익스피어는 살아남았다.

카알라일 Thomas Carlyle은 훗날 “만일 인도제국과 셰익스피어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인도는 포기해도 셰익스피어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그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셰익스피어, 그는 잉글랜드 르네상스가 낳은 위대한 천재였다. 셰익스피어는 1564년 4월 23일 영국 미들랜드 지방의 소도시 스트랫퍼드 어판 에이

셰익스피어 생가



번Stratford-upon-Avon에서 장갑 제조공의 8남매 중 셋째이자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문법학교는 졸업했지만 가세가 기울 탓에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1582년 18세의 나이에 결혼하여, 곧 세 자녀를 둔 가장이 되었다. 1580년대 후반, 그는 기회를 찾아 런던에 상경하여 극장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설은 분분하나, 셰익스피어는 극장에서 처음에는 관객들이 타고 온 말 돌보는 일을 하다가, 소품이나 대본을 담당하는 무대 보조원 그리고 군소배우 역할을 맡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1590년 경 그는 작가로서 펜을 들었다.

그러나 당대의 유명 극작가 그린Robert Greene은 셰익스피어를 “벼락출세한 까마귀”로 폄하했다. 당시 런던 연극계를 지배하고 있던 대학출신 작가들에게 셰익스피어는 신분도 출신지도 학벌도 변변찮은 인물로 조롱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셰익스피어의 출신 배경은 사후 4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를 괴롭히고 있다. ‘셰익스피어 작품들은 셰익스피어가 쓰지 않았다’는 소위 ‘원저자 논쟁’이다. 많은 사람들이 빈약한 논리와 불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진짜 저자라며 여러 인물을 내세워 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대학교육도 받지 못한 미천한 출신의 인물이 어떻게 이처럼 천재적이고 위대한 작품들을 쓸 수 있었겠느냐는 편견이 숨어있다. 내가 아는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답하고 있다. “목수의 아들 예수를 보세요.”

## 불멸의 <햄릿>

<햄릿>의 탄생은 무엇보다도 당대 연극계의 풍조와 관련이 있다.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반 엘리자베스 여왕 및 제임스 1세 시대의 관객들에게 가장 인기를 끌었던 연극 장르는 복수극이었다. 그것은 흥행의 보증 수표였다. 작품의 예술적 가치는 논외로 하고, 유혈이 난자한 잔혹한 액션과 악당을 통쾌하게 단죄하는 스토리는 항상 런던 시민들을 극장으로 불러 모았다. 두려움에 몸을 떨고 긴장감에 손에 땀을 쥐며 관객들은 복수 이야기에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것은 당대의 ‘공포 영화’였고 ‘스릴러’였다.

셰익스피어는 덴마크의 역사가 삭소 그라마티쿠스가 자신의 역사서에 수록한 북유럽 전설 <암레스 Amleth 이야기>와 그 이야기의 확대판인 프랑스 시인 프랑스와 드 벨르포레가 쓴 <비극 설화>(1570), 그리고 작자미상의 <원 햄릿Ur-Hamlet>을 바탕으로 새로운 유형의 복수 비극 <햄릿>을 썼다. 1601년 당대의 최고 배우 리처드 버비지가 타이틀 롤을 맡아 글로브 극장에서 첫 선을 보인 공연은 폭발적인 인기였고 4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흥행은 계속되고 있다.

오늘도 무대에서는 막이 열리고 우리는 그 세계를 응시한다. 악의 불길은 서서히 궁전을 삼키고 있다. 햄릿은 진실을 확인하고 타락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러나 악을 제거하고 도덕적, 정치적 질서를 복구하는 데는 많은 희생이 따랐다. 악당 클로디어스뿐만 아니라 햄릿을 포함한 7명이 비극적 죽음을 맞이한다. 악의 불길은 선도 함께 휩쓸어 간다. 삶, 죽음, 인간, 세상에 대한 명상录, 그것이 <햄릿>이다.

## 새로운 질문과 답을 찾는

### 〈햄릿〉

허순자  
연극평론가

셰익스피어는 끊임없이 다시 태어난다. 사유의 진폭을 달리하는 차별화된 사고와 성찰로 다른 뉘앙스, 숨은 의미를 쫓는 도전이다. 평론가 안드레이 주로프스키가 주목한 바 그 이유는 “셰익스피어가 언제나 우리에게 자신을 새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일지 모른다. 그는 피터 브룩Peter Brook을 비롯한 동서의 많은 현대 연극인들을 설득시킨 안 코트Jan Kott의 『동시대의 셰익스피어』(1962)에의 반격이듯, “셰익스피어는 우리의 동시대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대신, 셰익스피어는 “과거에도 늘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를 동시대로 만들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얼핏 상충하는 주장으로 들리나 실은 서로를 품어내는 말이다. “만세를 위한 작가”의 탄력적인 희곡 자체가 이를 지지해준데 그 어떤 현대의 셰익스피어 공연도 그것의 동시대적 의미체계로부터 괴리될 수는 없다. 무릇 시대정신zeitgeist을 표방하는 정서적 환기와 논리적 순환의 맥을 짚어주기 때문이다. 성경 다음으로 주석이 많이 달린다는 〈햄릿〉이 그리도 빈번히, 지속적으로 다시 태어난 주인공의 그것처럼 피할 수 없는 운명이요, 존재의 증명에 다름 아니다.

### 〈햄릿〉, 그 치명적인 매력

북구의 암레트 설화에 근거를 둔 〈햄릿〉은 텍스트나 공연을 접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말을 건다. 아마겟돈의 현장 혹은 스틸러를 방불케 하는 기시감 가득한 이야기는 대중을 매료시키는 힘을 지닌다. 역모와 살해, 권력 찬탈, 근친상간, 존속살인, 실연, 광증과 유사 광기, 시체 유기, 자살과 결투, 대학살의 증언은 장렬하다. 르네상스 복수 비극의 테를 두른 작품은 덴마크 왕자의 고뇌와 숙명, 그가 처한 상황의 딜레마로 호기심을 자극하고는 이내 깊은 공감대의 보편성으로 상승한다. 게다가 신화와 역사, 놀라운 시적 상상력이 공모하는 변증법적 과정에서 인물의 사적 관계의 서사가 일약 공적, 실존적 차원으로 이동하며 복합적인 층위를 형성한다. 이로써 야기되는 질문과 암시, 형이상학적 명제, 추론은 의도된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opacity”으로 난해하되, 치명적인 매력으로 작용한다. 인간의 실체를 드러내는 그것에는 삶을 관통하는 날카로운 프리즘이 작동하는 동시에 명상의 거울로 관조케 하는 주제들이 동행한다. 하여 ‘관계의 극’, ‘기억의 극’, ‘사고의 극’, ‘죽음과 죽는 것에 대한 극’, ‘삶과 연극에 대한 극’, ‘겹치기 구조의 극’이라는 키워드의 행렬은 길고, 다채롭다.

그뿐인가. “내게는 햄릿의 기미가 있다”고 고백한 콜리지Samuel Taylor Coleridge로부터 “우리가 햄릿이다”라고 밝힌 해즐릿William Hazlitt 같은 19세기 낭만주의 시인·비평가들의 자기 동일시 현상은 과거에 머물지만은 않는 듯하다. 신고전주의의



완고한 처방 대신, 셰익스피어의 자유로운 우주, 열린 사상을 선호해온 독일연극에서는 “독일은 셰익스피어다”라는 외침이 들렸다. 그곳에서는 셰익스피어의 언어에 대한 자긍심으로 원작의 훼손을 불경 시 하는 영국과 달리, “창조적 파괴creative vandalism”로 비유되는 <햄릿> 공연의 극단적 시도들이 도드라졌다. 20세기 후반의 페터 차덱Peter Zadek, 하이너 뮐러Heiner Müller, 프랑크 카스트로프Frank Castorf 같은 연출가들의 관습 타파적인 공연들이 그렇다. 그러한 전통은 2010년 남산예술센터에서 목격했던 토마스 오스터마이어Thomas Ostermeier와 그의 연기적 분신인 배우 라르스 아이딩어Lars Eidinger가 정전의 아성을 전복시킨 거친 욕망의 포스트드라마 <햄릿>이 뒤를 잇는다. 한편, 20세기 초 정전 번역으로 근대극의 초석을 놓은 쓰보우츠 쇼요坪内消遙 이후 발전해온 일본의 셰익스피어 수용도 주목된다. 자국 문화 전통의 영감으로부터 셰익스피어를 다시 쓴 구로사와의 영화 버전, 니나가와의 <햄릿>등이 주도한 미학적 자신감은 일본연극계에 ‘셰익스피어에는 진정 일본적인 것이 있음’을 자각케 하는데 기여했다.

## 햄릿이란 이름의 ‘별들의 대행진’

햄릿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햄릿>을 말할 수 없다는 점 또한 특이 사항이다. 시대의 줄기를 따라 스펙트럼을 이룬 <햄릿> 공연사는 곧 햄릿의 오랜 무대 여정이다. 그것은 작가가 염두에 두고 집필했다는 엘리자베스 조 최고의 스타 배우 리처드 버베지Richard Burbage를 선봉으로 한 연기사史의 대장정이다. 왕정복고기, 18세기 영국 무대를 평정한 토마스 베티ertonThomas Betterton, 로버트 윌크스Robert Wilks, 데이비드 개릭David Garrick, “햄릿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바이런의 옹호 아래 고전주의의 형식미를 구가한 존 필립 캠블John Philip Kemble, “킨의 연기를 보는 것은 번개 불로 셰익스피어를 읽는 것과 같다”는 콜리지의 찬사로 회자되는 에드먼드 킨Edmund Kean으로부터 찰스 매크레디Charles Macready, 미국의 에드윈 포레스트Edwin Forrest, 에드윈 부스Edwin Booth, 햄릿의 복잡한 내면 풍경을 육화한 최초의 기사 배우 헨리 어빙Henry Irving 등, 19세기 ‘별들의 대행진’은 눈부시다. 그들이 연기로 쓴 대하 서사는 햄릿이 “배우들에게 주는 충고”(3막 2장)와 대조되는 비유적 아이러니로 ‘무대가 세상’임을 또한 웅변해준다.

연출가의 시대로 진입한 20세기에도 햄릿에 대한 배우들의 열망 혹은 집착은 줄어들지 않았다. 지적인 풍모, 사유의 깊이로 1920년대 브로드웨이 무대를 석권한 존 배리모어John Barrymore, 1930년대 초부터 16년간 6개의 다른 <햄릿> 공연들에서



데이비드 개릭(1717-1779).

드루어리 레인 극장에서 1막 4장을 연기하는 장면. 그는 햄릿 역에 뚜렷한 성격을 부여하며 내면적인 연기의 전통을 창출했다. ©James McArdell



헨리 어빙(1838-1905).

기사 작위를 받은 최초의 영국 배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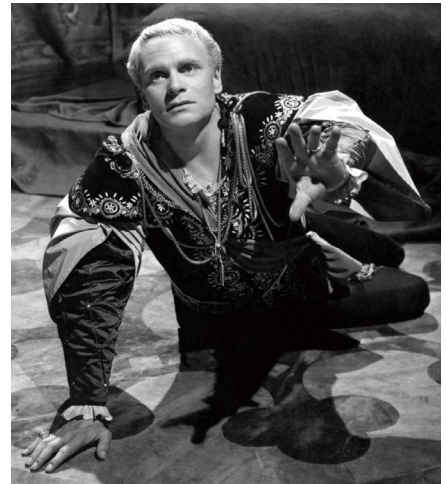


500회 이상의 햄릿으로 살았던 ‘첼로 보이즈’의 존 길구드 John Gielgud, 신체적 역동성으로 어네스트 존스의 프로이드적 해석에 박차를 가한 로렌스 올리비에 Laurence Olivier, 초대 극장장이었던 그가 연출로 1963년 영국 국립극장의 출범을 알린 무삭제 <햄릿>에서의 피터 오톨 Peter O’Toole, 그리고리 코진체프 Grigori Kozintsev의 1964년도 러시아 흑백 필름에서 “소외된 자신을 사색하는” 햄릿 이노켄티리 스모크트노프스키 Innokenty Smoktunovsky는 수용소 군도 출신의 저항시인이자 가수였다. 반면,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sup>■</sup>의 초대 예술감독 피터 홀 Peter Hall의 1965년도 공연에서는 약관 24세의 ‘최연소 햄릿’ 데이비드 워너의 냉소적 무관심의 실존적 햄릿을 떠올리게 했다.

1995년 윌슨 Robert Wilson과 르빠쥐 Robert Lepage는 각기 1인극으로 최소화한 <햄릿: 모놀로그>와 <엘시노어>를 연기했다. 이듬해엔 케네스 브래너 Kenneth Branagh가 연출과 주인공을 맡은 4시간짜리 무삭제 영화버전을 만날 수 있었다. 버나도의 오프닝 라인 “누구냐?”를 종장으로 옮겨 호레이쇼의 대사로 변경한 브룩 Peter Brook의 2시간 30분짜리 <햄릿의 비극>(2002)에는 컬러블라인드 캐스팅으로 아드리안 레스터의 햄릿이 있었다. 2010년대로 고개를 돌리면, 여성연출가 린지 터너 Lindsey Turner의 <햄릿>(2015)이 눈에 들어온다. <셜록> <프랑켄슈타인>에서 검증된 기량과 공력이 밝혀주는 베네딕트 컴버배치 Benedict Cumberbatch의 중독성 있는 햄릿 연기는 2016년 ‘NT Live’ 화면을 통해 우리에게도 친숙해졌다. 조셉 팝 Joseph Papp은 “햄릿을 연기하기 전에는 [배우는]졸업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배우에게 햄릿은 정말로 졸업하기 싫을 만치 매력적인 배역인 듯하다. COVID-19 봉쇄 상황에서, 언제 개막 될지 불투명함에도 81세의 노장 스타 이언 맥켈런 Ian McKellen은 지난여름 나이불문 age-blind 캐스팅 <햄릿>(선 마티아스 Sean Mathias 연출, 시어터 로열 원저 제작)의 햄릿으로 연습에 돌입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 ■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 Royal Shakespeare Comp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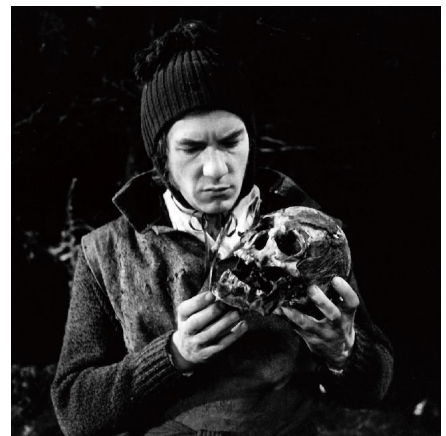
셰익스피어의 출생지인 영국 스트랫퍼드어폰에이번을 거점으로 하는 극단으로 런던의 알드위치 극장에도 진출했다. 줄여서 RSC라고도 불린다. 셰익스피어의 연극에 현대극을 섞은 레퍼토리로 활약하고 있다.



로렌스 올리비에 감독·주연의 영화 <햄릿> (1948)



24살의 나이에 햄릿 역을 맡은 데이비드 워너(1965)  
©Reg wilson



햄릿 역을 연기한 이언 맥켈런(1971)



국내 최초 햄릿 故김동원 배우

## 한국의 <햄릿>, 그것을 향한 관객의 열망

신정옥의 『셰익스피어 한국에 오다』(1998)에 의하면, ‘1922년 단행본으로 출간된 현철의 <하믈레트>(1921 『개벽』 연재)는 한국 최초의 셰익스피어 완역이었다. 1938년 신파극단 낭만좌의 <함리트 묘지 1막>의 번안 장면 공연을 제외하면, 전막 공연 <햄릿>(정인섭 역, 이해랑 연출)은 1949년 12월 중앙대학교 연극부가 시공관에서 올린 것이 처음이었다’. 6.25 동란 시 1951년 피난지 대구와 부산에는 실험이 올린 김동원 주연의 <햄릿>(한노단 역, 이해랑 연출)도 있었다. 실험은 한도 후인 1953년 9월과 10월에도 첫 작품으로 <햄릿>(유치진 편, 이해랑 연출)을 시공관과 동양극장에서 올렸다. 1962년 드라마센터도 김동원 주연의 개관 작 <햄릿>으로 개가를 올렸다. 1976년 그곳의 동랑레퍼터리는 한국과 범아시아적 전통을 결합시킨 번안 작 <하믈태자>(안민수 작·연출)를 제작, 이듬해엔 해외 순회에도 나섰다. 80년대 군부독재, 5.18 광주사태의 암울한 정치적 현실에 직격탄을 날린 기국서의 연작시리즈 <햄릿 1~5>(1981~90)는 <햄릿> 실험의 획기적인 장을 연 공연들이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한국 전통 공연 양식, 샤머니즘에 기댄 다양한 <햄릿> 공연들이 이어졌다. 이현우의 『한국 셰익스피어 르네상스』(2016)에 따르면, ‘1990~2011

년 국내 단체들의 <햄릿> 공연은 101편으로 전체 셰익스피어 공연 395편 중 25.6%를 차지했다. 4편 중 1편이 <햄릿>이었던 것이다’. 제한된 지면에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동시대의 <햄릿>은 그에 대한 한국연극의 특별한 애정을 증명해준다. 현대 놀라운 것은 창립 70주년을 맞은 국립극단 레퍼토리에서 <햄릿>의 존재감은 위약했다. 혹 질적 결핍을 말함이 아니라면 적어도 제작 횟수에 있어서는 그랬다. 2001년 젊은 김석훈을 주인공으로 해오름극장의 광활한 프로시니엄 무대를 미학적으로 장악해야 하는 부담을 안았던 <햄릿>(정진수 연출)이 첫 제작이었고, 2007 ‘세계명작시리즈’의 <테러리스트 햄릿>(다니엘 헤르초크 연출, 2008 재공연)이 마지막이었으니 말이다. 더군다나 후자는 독일 만하임국립극장의 전 극장장이었던 연출 외, 무대·의상·소품 디자이너, 드라마트 루그, 제작감독에 이르기까지 해외 스태프들이 포진한 협업 공연이었다. 2010년 법인화 이후(특히 셰익스피어 탄생 450주년 및 서거 400주년이 ‘빌미’가 됐던 2014~2016년 사이), 국내외 중견 연출가들을 초빙해 제법 여러 편의 셰익스피어 공연을 올렸음에도 <햄릿>은 그 대열에 끼지 못했다. 오랜 기다림 속 <햄릿>에 대한 관객의 증폭된 열망은 마침내 그것을 ‘국립극단에서 가장 보고 싶은 연극 2위’에 올려놓음으로써 새로운 제작을 재촉했다. 그리고 2020년 말, 국립극단은 이제금 다시 태어날 새로운 <햄릿>의 커튼을 열 준비를 마쳤다. 셰익스피어의 궁극적 가치를 ‘영원성timelessness’이라 할 때, 그에 다가가는 방식은 다양할 것이다. 다소 극단적인 어휘가 불편할 수 있되 ‘존경이 아닌 사랑과 열정으로 고전을 강간할 필요가 있다’는 안 코트의 전언은 <햄릿>의 새로운 질문과 답을 찾으려는 젊은 창작자들의 다부진 행보에 참고가 될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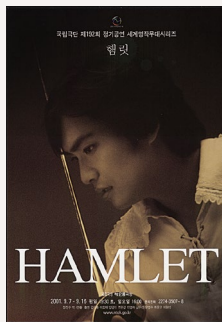
## 햄릿 NOTE

### 숫자로 보는 햄릿

-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가운데 첫 번째 작품으로 1601년 완성되었다.
- 총 4,024행으로 셰익스피어 극 중 가장 긴 분량이다.
- 운문 75% 산문 25%로 이루어져 있다.
- 주인공 ‘햄릿’의 대사는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다.

### 국립극단과 햄릿

국립극단은 창단 이래 총 3차례의 〈햄릿〉 프로덕션을 선보였다.



2001

〈햄릿〉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창단 51년 만에 첫 〈햄릿〉으로 원작에 충실한 정통 고전을 표방했다. 무려 48명의 배우가 출연하는 대규모 무대로 국립극단 단원 출신의 배우 김석훈이 ‘햄릿’ 역을 맡아 화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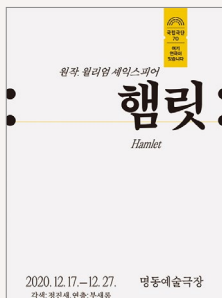


2007

〈테러리스트 햄릿〉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칼 대신 총을 든 파격적 햄릿으로, 독일 연출가 옌스-다니엘 헤르초크(Jens-Daniel Herzog)가 연출하고 배우 서상원이 ‘햄릿’ 역할을 맡았다. 과감하고 현대적인 재해석, 감각적인 무대연출로 당시 많은 화제를 몰고 와 이듬해 두 차례의 재공연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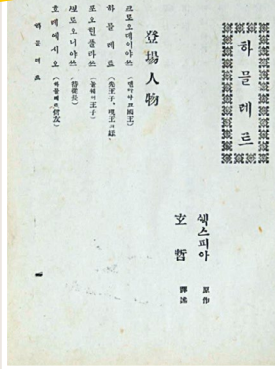
2020

〈햄릿〉

명동예술극장

‘국립극단에서 가장 보고 싶은 연극’ 설문에서 관객들의 지지를 받아 70주년 라인업으로 기획되었다. 동시대 감성을 담은 각색으로 ‘왕자 햄릿’이 아닌 복수자 ‘공주 햄릿’을 그렸다.

## 한국의 햄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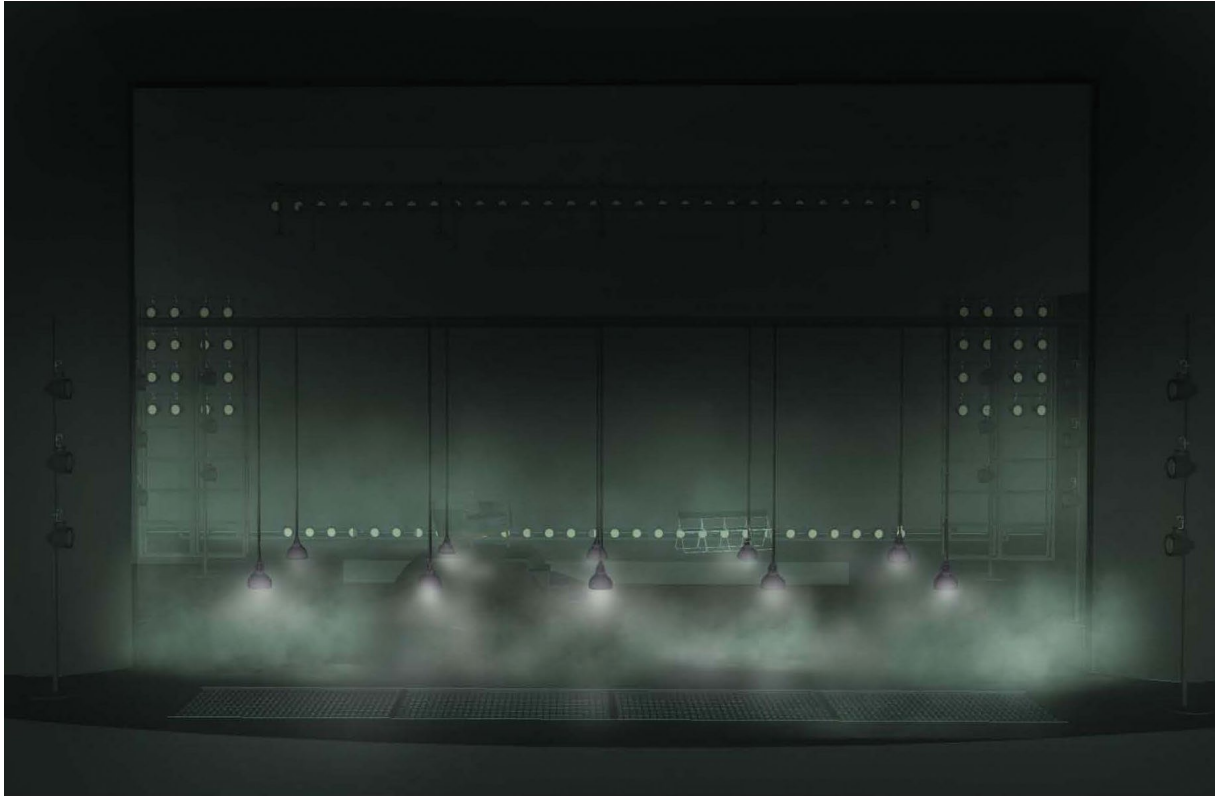


- 『햄릿』은 우리나라에서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 가장 먼저 번역·출판되었다. ‘하믈레트’라는 이름으로 1920년부터 종합 월간지 ‘개벽’에 연재되었고, 1923년 단행본이 출간됐다.
- 번역극 중 가장 먼저 공연된 작품이기도 하다. 6.25 동안 와중에도故이해랑의 연출로 전막 공연을 올렸다. 당시 ‘햄릿’ 역할을 맡았던 故김동원 배우는 지금도 ‘영원한 햄릿’으로 불린다.
- 이 외에도 남산 드라마센터가 개관했을 때(1962) 처음 공연된 작품도, 호암아트홀 개관작(1985)으로 선택한 작품도 <햄릿>이었다.



## 원작과 함께보기

	원작	국립극단 2020 <햄릿>
배경	12세기 덴마크왕국 엘시노어성	어느 때, 어느 곳
등장인물 성별	햄릿과 그의 측근들(호레이쇼, 마셀러스, 버나도)은 남성으로, 오페리아는 가녀린 여성으로 묘사된다.	왕위계승서열 1위 해군장교 햄릿 공주로 설정했다. 오페리아는 남성이며, 햄릿 친구들의 성별도 고루 분배했다.
가부장적 세계관 수정	<b>햄릿</b>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_ 1막 2장	<b>햄릿</b> 약한 자여, 그대의 실체는 무엇인가?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동시대성 반영	<b>햄릿</b> 다시 만나 반갑네. 자네도 별일 없지? 호레이쇼, 정말 무슨 일로 돌아왔는가? <b>호레이쇼</b> 천성이 게을러 학교 가기 싫어서죠. _ 1막 2장	<b>햄릿</b> 다들 왜 여겼어? 학교는? <b>호레이쇼</b> 역병 때문에 수업이 비대면으로 썩다 바뀌었어. 역사적인 거리두기 중이지!
오페리아의 노래	괴로움에 빠진 오페리아는 광인의 노래를 부른다. <b>오페리아</b> (노래한다)그대의 진실한 사랑 남다른 줄 내 어찌 알리요? 조가비 모자와 지팡이 보고 발에 신은 짚신 보고 알죠. _ 4막 5장	왕실에 대한 조롱의 노래로 바뀐다. <b>오페리아</b>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은 건 하늘!



여신통  
미술감독

새로운 무대의 공간을 떠올릴 때 나는 몇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추적한다.

그 곳이 어디일까? 어떠한 형태를 가진 공간의 모양이어야 그 곳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을까?

어떤 빛을 통해 우리는 그곳을 직관할 수 있을까? 그곳에서 무슨 일들이 생길까?

우리는 그곳을 어떻게 바라봐야하는가?

안개가 필요했다. 습도가 공간을 채우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습한 공기가 그 공간을 짓누르고 있으면 했다.

죽음은 조명과 포그가 만나 안개처럼 이 무대에 가득차기를.

정렬된 의자들이 마치 묘지의 비석처럼 보이길.

이곳에 살고 있는 그들이 점점 흠으로 그리고 바닥 아래로 향하길.

배우들이 내는 목소리가 죽은 영혼들의 소리가 되길...

모두 더럽혀져 구원받지 못하기를. 그 누구도 이곳에서 살아 남지 않기를...

‘햄릿’은 그랬으면 좋겠다.





**여신동** Yeo Shin-dong

두루두루아티스트컴퍼니 소속

아티스트

#### 주요작품

시노그래피(무대·조명·의상)

[연극] 〈작가, 작품이되다-장주네〉 〈우리는 농담이 (아니)야〉 〈레러미 프로젝트〉 〈이방인의 노래〉 〈노인과 바다〉 〈소녀가〉 〈가까스로 우리〉 외

[전시] 〈클럽 그로칼랭〉

[콘서트] 〈ROUND AND AROUND 둥글고 둥글게〉

연출

[연극] 〈pan123me1〉 〈오렌지 북극곰〉 〈1,908초〉 〈비행소년KW4839〉 〈사보이사우나〉

[전시] 〈국립극단 70주년 기념전시-연극의 얼굴〉

[콘서트] 〈Hyukoh concert: how to find true love and happiness〉 〈새소년/2020NEON concert〉

〈jungjaeil in concert〉 외

**수상** 2017 제6회 예그린 뮤지컬 어워드 무대예술상

2014 문화체육관광부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연극부문

2012 제5회 대한민국 연극대상 무대예술상

2011 제17회 한국뮤지컬대상 무대미술상

2010 동아연극상 무대미술기술상













## 스태프

원작—윌리엄 셰익스피어 William Shakespeare

번역—이태주 Lee Tae-joo

저서 《세계 연극의 미학》《연극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브로드웨이》《충격과  
방향의 한국연극》《셰익스피어 작품집》《근대 영·미 희곡집》《현대 영·미  
희곡집》《셰익스피어 4대 비극》《셰익스피어 4대 희극》《셰익스피어 4대  
사극》《셰익스피어 명언집》《이웃사람 셰익스피어》

각색—정진세 Jung Jin-se

프로필 \_ 4페이지

연출—부새롬 Pu Sae Rom

프로필 \_ 6페이지

미술—여신동 Yeo Shin-dong

프로필 \_ 30페이지

조명—최보윤 Choi Boyun

연극 《화전가》〈날아가 버린 새〉〈알리바이 연대기〉〈콘센트-동역〉〈나는  
살인자입니다〉〈알앤제이〉〈록앤롤〉〈그믐,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죽고 싶지 않아〉〈피와 씨앗〉〈목란언니〉〈나는 나의 아내다〉외  
뮤지컬 〈꾼빠이, 이상〉

음악 〈김광민 콘서트〉〈혁오 콘서트 '23〉〈최백호 40주년 기념 콘서트〉〈이적  
소극장 콘서트 '무대'〉〈한승석&정재일 '바리abandoned'〉외

수상 2017 제54회 동아연극상 무대예술상  
2016 제3회 서울연극인대상 스태프상 조명  
2013 제34회 서울연극제 무대예술상 조명

의상—김지연 Kim Ji-yeon

연극 〈그 개〉〈갈매기〉〈겨울이야기〉〈사회의 기동들〉〈남사당의 하늘〉〈칼로막  
베스〉외

뮤지컬 〈렌트〉〈빅피쉬〉〈나빌레라〉〈영웅〉〈윤동주 달을 쏘다〉〈보니 앤 클라이  
드〉외

오페라 〈1945〉〈맥베스〉〈마술피리〉〈휘가로리 결혼〉〈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  
체〉외

수상 2014 제51회 동아연극상 시청각디자인상  
2008 제44회 동아연극상 무대미술기술상

분장—장경숙 Jang Kyoung-suk

연극 〈작가〉〈춤의 국가〉〈왕서계 이야기〉〈화전가〉〈자전거도독헬멧을쓴소년〉  
〈물고기 인간〉〈인정투쟁; 예술가편〉외

소품—권민희 Kwon Min-hee

연극 〈데스트랩〉〈아랫것들의 위〉〈행복한 왕자〉〈죽고 싶지 않아〉〈시〉〈우주소  
리〉〈오렌지 북극곰〉〈미스터 신〉〈에덴미용실〉〈비행소년 KW4839〉〈낙  
화유수〉외

뮤지컬 〈광주〉〈블러디사일런스〉〈마리퀴리〉〈월명〉〈번개맨〉〈여명의 눈동자〉  
〈테레즈라캥〉〈홀연했던 사나이〉외

음악극 〈파랑새〉

음악—카입 Kayip

연극 〈시〉〈피와 씨앗〉〈당신이 알지 못하나다〉〈워킹홀리데이〉〈널 위한 날  
위한 너〉〈그녀를 말해요〉〈비포애프터〉〈서울연습 - 모델, 하우스〉외

기타 〈낮선 이웃들〉〈증강현실 퍼포먼스 '오로라, 색의 비밀'〉〈디자인 아트 페어  
2018〉〈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국립 국악관현악단 '시나위 프로젝트  
1'〉〈다큐멘터리 '누들로드'〉〈BBC Scottish Symphony를 위한 새 관현  
악 곡〉외

수상 2010 문화체육관광부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음악부분

음향—안세운 An Se-woon

연극 〈동양극장 2020〉

기타 〈연성〉〈평창동계올림픽 - 한중일 문화동계올림픽공연〉〈MMC 페스티벌〉  
〈D.M.O.T 대만 투어공연〉외

무술—이국호 Lee Kuk-Ho

연극 [무술] 〈스웨트 SWEAT〉〈왕위 주장자들〉〈헨리 4세〉〈줄리어스 시저〉〈칼  
집 속의 아버지〉〈전쟁터를 훑친 여인들〉〈만파식적 도난사건〉〈목란언니〉  
〈로미오와 줄리엣〉외

[배우] 〈생존도시〉〈백중사 이야기〉〈이기동 체육관〉〈심이야〉〈로맨티스트  
죽이기〉〈뷰티풀 번아웃〉〈칼로막베스〉〈강철왕〉외

움직임—김윤규 Kim Yun-kyu

연극 〈춤향은 살아있다〉〈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오를라〉〈이건 로맨스가 아  
니야〉〈용비어천가〉〈에쿠우스〉〈너는 똥을 누고 나는 물고기를 누었다〉외

무용 〈비극〉〈이방인들의 축제〉〈회귀선〉〈작昨 - Yesterday〉〈침묵〉〈숫나기〉  
외

수상 2019 한국춤비평가협회 베스트작품 〈비극〉  
2004 한국춤비평가협회 최고무용가상  
2004 한국문예진흥원 올해의 예술상 무용부문 최우수상

조연출—조예은 Cho Ye-eun

연극 [작·연출] 〈트렁크씨어터프로젝트〉〈빠꼼빠꼼〉

[연출] 〈수궁가가 조아라: 자라의 귀환〉

[조연출] 〈마우스피스〉〈썬사인의 전사들〉〈그 개〉〈2센치 낮은 계단〉〈로퐁  
찬 유랑극장〉〈한여름 밤의 꿈〉〈검은 입김의 신〉〈이건 로맨스가 아니야〉  
〈거인〉외

조연출—박만수 Park Man-su

연극 [조연출] 〈서울탈춤〉〈보이지 않는 도시〉

[배우] 〈시시딱딱〉

## 만드는 사람들

### 출연

이봉련 햄릿  
이상홍 클로디어스  
성여진 거트루드  
김용준 폴로니어스  
유원준 오펔리어

박용우 레어티즈 외  
신정원 오즈릭 외  
김보나 호레이쇼  
박소연 마셀러스 외  
송석근 버나도 외

노기용 로젠크란츠  
김예림 길덴스턴  
강현우 포틴브라스 외

### 스태프

원작 윌리엄 셰익스피어 William Shakespeare  
번역 이태주  
각색 정진새  
공연대본·연출 부새롬

미술 여신동  
조명 최보윤  
의상 김지연  
분장 장경숙  
소품 권민희  
음악 카입  
음향 안세운  
무술 이국호  
움직임 김윤규  
조연출 조예은 박만수

미술 어시스턴트 이상민  
조명 어시스턴트 김소현  
의상 어시스턴트 김선아 강경애

기술감독 김무석  
무대감독 나혜민  
무대제작감독 이승수  
조명감독·조명오퍼레이터 류선영  
음향감독·음향오퍼레이터 음창인  
의상감독 박지수

무대진행 문성현 김연수 최성관 김영주  
의상진행 전요나 신은혜 김민주  
분장진행 박진경 남혜연  
  
무대제작 온스테이지\_대표 김준성  
의상제작 유니스\_대표 김지연  
소품제작 대우인테리어\_대표 권성태  
조명장비임차 K라इट\_대표 황종량  
음향장비임차 (주)두잉미디어\_대표 강상복  
MONKEY\_대표 김정훈

조명팀 곽태준 김휘수 노우영 박정원 윤지영 이상민  
정요셉 정찬영 조승희 이애림  
음향팀 박상준 김학준

온라인 송출영상 제작 영상작업공간들어  
\_대표 황경환

영문자막 번역 조용경  
영문자막 제작·운영 김건

홍보·마케팅 총괄 정용성  
홍보 이정현 이승이  
마케팅 박보영 김태은 오지수 김수현 변정원 조영채  
이경선

메인디자인 페이퍼프레스\_대표 박신우  
응용디자인 스튜디오 봄봄\_대표 김은총  
홍보·연습·공연사진 나승열  
홍보영상 만나사진작업실\_대표 김신중  
하이라이트영상 오슬로 프로젝트\_대표 이영관  
옥외광고 애니애드\_대표 윤한국  
홍보물 인쇄 인타임\_대표 김종민  
  
프로그램북 디자인 허미경  
프로그램북 인쇄 미림아트\_대표 신동복  
  
티켓 김효진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매표안내원 김인혜 권소담 어주희  
하우스매니저 김나래 이기쁨  
하우스안내원 이지은 이지예 정해룡 임예은 김능연  
박다연 박선준 홍정선 예한비 이신영 김다빈 고정  
윤 채지성 장지영 강유석 김나운 김소희 안수진

기획·제작 총괄 지민주  
프로듀서 정채영 지영림  
제작진행 김다애

제작 (재)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  
사무국장 오현실



재단법인 국립극단은 연극인 및 연극예술 후원자들로 구성된 이사회와 예술감독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언제나 삶의 진실한 목소리를 담은 연극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하는 연극은 곧 예술의 근원이자 총체이기도 합니다. 국립극단은 시와 음악, 춤, 시간과 공간, 미디어 등 모든 것을 아울렀던 연극 본연의 정신을 이어갈 것이며, 또한 동시대인의 삶과 밀접히 관련된 수준 높은 작품으로 세계와 적극 소통할 것입니다. 그 땀과 열정의 무대가 관객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진한 감동으로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With the board of directors who have been committed in theater or have been patrons for the performing arts,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under the guiding system of the artistic director has always endeavored to stage productions that reverberate with truth and life. We are always reminded of the fact that theater has been the origin of all arts, and it should always reflect thoughtful introspection on humankind and society.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will continue its effort to realize the very spirit of theater which embraces the verse, music, and dance in the newly renovated form of media and understanding of space. By staging performances that address contemporary problems, we will interact and exchange ideas with the world with our belief that our endeavor will only be completed when our performances touch and move the hearts of our audiences.

## (재)국립극단 이사회

김상현 이사장 네이버(주) 前 대표이사 | 김광보 이사 (재)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 길해연 이사 연극배우 | 김명화 이사 극작 및 평론가 | 심재찬 이사 연출가 | 이상우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 이재경 이사 건국대학교 교수 | 정재승 이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김철호 이사 국립중앙극장 극장장 | 윤성천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 김혁수 감사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

## 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

## 사무국장

오현실

## 작품개발팀

지민주 팀장 | 한나래 조유림 작품개발·학술 | 이지연 아카이브

## 공연기획팀

김옥경 팀장 | 김철순 심소연 정채영 지영림 이정민 박소영 프로듀서

## 홍보마케팅팀

정용성 팀장 | 이정현 김유연 최윤영 홍보 | 박보영 김태은 오지수 김수현 이승이 변정원 조영채 마케팅 |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김효진 티켓 | 김나래 이기쁨 하우스매니저

## 무대기술팀

김무석 팀장 | 신승호 김정빈 나혜민 김태연 무대감독 | 홍영진 이승수 경은주 무대제작감독 | 음창인 이병석 박정현 장도희 음향감독 | 김용주 류선영 임수연 조명감독 | 박지수 무대의상감독

## 경영관리팀

정광호 팀장 | 신민희 대외·평가·예산·감사 | 현승은 박지민 김수아 예산·회계·세무 | 정병욱 시설·용역·공사 | 이민희 인사·복무·복지 후생 | 박예원 이사회·제도·교육 | 김시내 비서·윤리경영·경영공시 | 주현우 노무·자산·계약·정보화·전산

##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김성제 소장 | 김미선 프로듀서·국제교류 | 손준형 연구원 | 최은정 예술교육 | 김연경 작품개발·운영

## 2020 시즌단원

강현우 고애리 권은혜 김명기 김보나 김세환 김예림 문예주 박소연 박용우 송석근 이상홍 이원준 이유진



# 연극이 보고 싶을 땐!

국립극단 회원만의 특별한 혜택을 누리보세요

앉고 싶은 좌석을 누구보다 빠르게, 할인 받고 예매하는 즐거움까지

## 유료회원

\* 가입기간 1년

친한친구 연회비 5만원

- 제작공연 40%할인(전등급, 4매 한)
- 국립극단 기념품 제공
- 제작공연 티켓 우선 예매

## 국립극단 연극인회원

\* 가입기간 3년

가입대상 연극계 종사자

- 제작공연 50%할인(전등급, 본인 1매 한)

좋은친구 연회비 10만원

- 친한친구 혜택
- 제작공연 1개 작품 초청  
(R석 2매, 명동예술극장 기준)

## 무료회원

- 국립극단 홈페이지 예매 시 수수료 면제
- 공연 프로그램 및 포스터 무료 다운로드

문의 및 가입

국립극단 홈페이지  
[www.ntck.or.kr](http://www.ntck.or.kr)

고객센터  
1644-2003



# 오늘 공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양한 기념품을  
만들어 주세요.**

2019.10.  
〈알리바이 연대기〉 관객 의견



**마스킹 테이프 등  
기념품 추가 제작**

2020.1.



**자판기 판매 음료를  
늘려주세요.**

2019. 4.  
〈갈릴레이의 생애〉 관객 의견



**극장 내  
자판기 메뉴 추가**

2019.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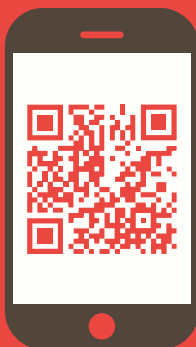
**프로그램북을  
구하고 싶어요.**

2018. 6.  
〈얼굴도둑〉 관객 의견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 개시  
(홈페이지)**

2018. 8.



오늘도 국립극단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 QR코드를 스캔하여 고객만족도조사(약 1분 소요)에 참여하세요.
- \* 고객만족도조사는 공연 기간에 한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그래, 연극이다.

연극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지금 여기에 붙들어 놓는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3 국립극단  
373 Cheongpa-ro, Yongsan-gu, Seoul, Korea(04302)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35 Myeondong-gil, Jung-gu, Seoul, Korea(04534)



국립극단  
70

여기  
연극이  
있습니다